



주요 가전제품 전기요금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변경된다

2010년 7월부터 13개 가전제품, 연간 전기요금 표시 의무화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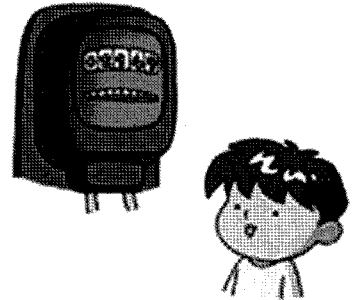
■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. 7. 1부터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힘

○ 금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전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

※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제품 (13개 제품)

- 전기냉장고, 전기냉동고, 김치냉장고, 전기냉방기(에어컨), 전기세탁기, 전기드럼세탁기, 식기세척기, 식기건조기, 전기밥솥, 전기진공청소기, 선풍기, 공기청정기, 상업용전기냉장고

※ 에너지비용 표시(예 : 전기냉장고)



< 현행 >



< 변경후 >



주요국 현황

- 미국, 일본 등 선진국도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고 있음

<미국, 일본 에너지비용 표시>

구분	미국	일본
라벨명	Energy Guide 라벨	통합 에너지 라벨
운용기관	FTC(연방무역위원회)	METI(경제산업성)
라벨 디자인		
대상 제품	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난방로 보일러 등(11개 제품)	냉장고, 에어컨, TV, 비데(4개 제품)

향후 추진계획

-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비용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게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2010.7.1부터 철저한 사후관리*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
 - ※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(별칙) 제1호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지식경제부는 이번 에너지비용 표시 의무화로 생산업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되고, 소비자도 에너지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선택해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